

IV. 동예와 옥저

1. 동예의 사회와 문화
2. 옥저의 사회와 문화

IV. 동예와 옥저

1. 동예의 사회와 문화

1) 동예의 위치와 변천

東濊와 沃沮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3세기 후반晋나라 陳壽가 편찬한 《三國志》 魏書 東夷傳이다(이하 《삼국지》 동이전으로 약칭함). 이에 의하면 濊는 남쪽으로 辰韓, 북쪽으로 고구려·옥저와 접하였고 동쪽은 큰 바다에 닿았으며 조선의 동쪽이 모두 예의 땅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삼국지》 동이전의 예는 한반도 동해안에 있는 예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며 광의의 예족과 구분하여 東濊로 불려진다. 중국 先秦문헌에서는 일찍부터 예족으로 추정되는 종족명칭이 나타나고 있으나¹⁾ 이에 대해 밝혀진 것은 거의 없다. 이후 《史記》와 《漢書》에서 ‘예’는 ‘맥’과 연칭되어 ‘穢貉’으로 표기되면서 ‘朝鮮’과 함께 燕나라 동방에 있던 종족으로 그 실체를 드러낸다.²⁾ 그리고 《삼국지》 《後漢書》에 이르러서는 예족을 濊貉으로 칭하여 맥족과 혼동하고 있으나 이는 후대 사가의 오류이며 예족은 貉이나 濊貉과는 구분되어야 한다.³⁾

한국사와 관련하여 예족의 존재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漢代로 元朔 원년(기원전 128) 漢의 遼東郡에 來附한 濊君 南閭 등이 거느린 28만 口의 집단이 그것이다.⁴⁾ 한은 남려의 투항을 계기로 그 곳에 滄海郡을 설치

1) 《詩經》 大雅 韓奕篇에 나오는 “其追其貉”의 ‘追’를 ‘穢’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金庠基, 〈韓濊貉移動考〉, 《史海》 1, 1974).

2) 《史記》 권 110, 列傳 50, 匈奴 및 권 129, 列傳 69, 貨殖.
《漢書》 권 24 下, 志 4 下, 食貨.

3) 尹武炳, 〈濊貉考〉(《白山學報》 1, 1966), 22~25쪽.

4) 《漢書》 권 6, 本紀 6, 武帝 및 권 24 下, 志 4 下, 食貨.

하였으나 3년만에 폐지하였다. 창해군의 위치에 대해서는 압록강과 渾江유역설, 동해안설, 압록강과 동해안지역설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남려가 위만 조선에 畔하여 한에 내항하였다는 《후한서》의 기록을 근거로 예군 남려세력을 동해안지역의 예로 추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기원후 3세기 중엽 고구려의 인구가 3만여 호 즉 15만 구 정도임을 감안할 때 28만 구라는 숫자는 광역에 걸친 대규모 집단이다. 여기에는 남려가 속한 정치집단 이외에도 다수의 정치집단들이 포함된 것으로 짐작되는데, 특히 ‘예군 남려 등’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남려는 來附세력의 대표적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집단적으로 요동군에 내부한 것은 진번·임둔지역까지 복속시킨 위만조선이 다시 압록강유역으로 세력팽창을 시도하자 이 지역의 토착 정치집단들이 크게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군 남려가 속한 지역은 위만조선에 이미 복속되어 있었던 眞番·臨屯지역과는 다른 곳이다. 따라서 창해군은 임둔세력이 있었던 동해안 이외의 지역에서 찾아져야 하며 남려 등이 속한 예는 동예와는 별개의 정치집단이다. 설사 이들이 종족적으로는 같은 계통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기원전 2세기 말경에는 이미 각 지역별로 정착하여 서로 다른 정치집단을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양자는 별개의 세력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즉 동해안지역의 예는 임둔이라는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고, 압록강·혼강 일대의 예족 역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다수의 정치집단군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맥족과 섞여 고구려국가의 기반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예족이 형성한 정치집단의 존재는 다른 곳에서도 찾아진다. 부여국의 창고에 ‘濊王之印’이라 새겨진 도장이 있고 부여에 濊城이란 이름을 가진 옛날 성이 있었다는 《삼국지》부여조의 기록에 나타나듯이 길림·장춘지역에도 부여국이 출현 이전에 이미 예족 정치집단이 존재하였다. 예족은 한반도내에서도 함경도·강원도·경기도 등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하였다. 〈廣開土大王陵碑〉에 나오는 ‘新來韓穢 沙水城’ ‘舍蔦城韓穢’ 등은 광개토왕이 정복한 백제지역 성으로 한강·임진강 일대에서 韓族과 공존하던 예족의 존재를 보여준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백제 동북지방과 신라 북변을 자주 침범하고 있는 靺鞨 역시 한반도 중부 및 동해안지역에 거주하던 예족들이다. 《삼국사

기》신라본기(南解次次雄 16년조)에도 北溟人이 발을 갈다 濊王印을 발견하여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 북명은 강릉 또는 안변지방으로 비정되고 있어 강원도 동해안 일대가 예족 분포지임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리고 경북 영일군 신평면 홍곡리(마조리)부락에서 ‘晉率善濊伯長’이 새겨진 銅印이 발견되어⁵⁾ 예족의 분포지역이 의외로 넓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형질학적으로 동일한 종족인지의 여부는 별개로 하고 일단 문헌 자료상에 나타나는 예족만 해도 활동시기와 분포지역이 이처럼 광범위하다. 이들은 지역에 따라 맥족·부여족·韓족 등과 섞여 정치·문화적으로 다양한 정치집단들을 구성하였다. 예족과 가장 광범위하게 동화한 것은 맥족으로 한대에 이미 예족과 맥족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맥족인 고구려를 예맥으로 통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⁶⁾ 더욱이 《삼국지》《후한서》에 이르러서는 동예도 예맥으로 칭해지는 등 예와 예맥을 혼동하는 오류가 빚어지기도 했다.⁷⁾

이처럼 예족들은 오랜 기간 넓은 지역에 걸쳐 다양하게 성장 발전해왔다. 동해안지역 예족의 뿌리는 동북지역 무문토기문화의 주인공들이다. 孔列土器로 대표되는 동북지방의 무문토기문화는 서북한의 팽이형토기, 압록강 중하류유역의 美松里式토기, 서남부지역의 松菊里형토기와는 다른 갈래를 형성하면서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여 한반도 중부 및 동남부지역으로 확산되었다.⁸⁾ 이들 동북지역의 무문토기인들은 기원전 3세기 이후에는 고조선의 細形銅劍 문화와도 활발하게 접촉하였다. 다음의 〈표〉에서 보듯이 함흥과 영흥 일대를 중심으로 동해안 각지에서 출토되는 세형동검·銅戈·銅銑·銅鏡 등의 청동기유물들은 고조선지역에서 제작된 것들로 두 지역의 교섭관계를 나타낸다. 이러한 청동기들은 대동강유역의 古朝鮮과 황해도의 진변, 서남부지역의 辰國 등 기원전 3~2세기경 한반도의 유력한 정치집단의 중심지에서 공통적

5) 梅原末治, 〈晉率善濊伯長銅印〉(《考古美術》8-1, 1967).

6) 尹武炳, 앞의 글, 19쪽.

7) 《三國志》권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30, 高句麗·夫餘.

8) 趙由典, 〈無文土器文化의 展開〉(《韓國史論》13, 國史編纂委員會, 1983), 101~105쪽.

盧燦眞, 〈孔列土器文化特色의 傳播網〉(《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上, 1994), 34쪽.

〈표〉 함경남도 일대의 초기 철기시대 금속유물 출토 일람표⁹⁾

출 토 지	청 동 기	철 기 및 기 타
함흥시 회상구역 이화동 토광묘	銅劍 2, 劍把頭飾 1, 銅銚 1, 細文鏡 2, 銅戈 1	쇠도끼 2 토기
함흥시 회상구역 치마동	銅戈 1	
함흥시 반룡구역 지장동	동검 1	
홍남시 사포구역 호상동	동검 2	
함주군 대성리(Ⅰ)	동과 2	
함주군 대성리(Ⅱ)	동검 1, 청동손칼 1	
* 함주군 조양리	청동방울 1	
함주 부근	동과 1	
락원군(퇴조구역) 송해리	동과 1	
홍원군 운포리	검과두식 1	토기 다수
북청군(신창) 하세동리 토광묘	동검 1, 동모 1, 동과 1, 수레부속 1	
북청군 청해토성	동검 1	
금야(인홍)군 연동리	동검 2	
금야군 용산리 토광묘(Ⅰ)	동과 1, 동모 1	
* 금야군 용산리(Ⅱ)	동검 1, 세문경 1	
* 금야군 용산리(Ⅲ)	동검 1, 동모 1, 검과두식 1	
금야(영흥)군 소라리토성	검과두식 1, 청동활촉 14, 수레부속 4, 청동단지 1	쇠도끼 5, 쇠단검 1, 쇠창끝 1, 쇠갈구리 2, 말채갈 2, 쇠뇌부속 1, 쇠단지 1, 토기 다수
강원도 문천군 남창리	동검 1, 동과 1	
함북 종성군 동관리	동검 1, 동과 1	

으로 출토되는 유물로 각 지역에 형성되어 있었던 정치집단과 지배자의 존재를 반영하는 유물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고학 자료를 통해 늦어도 기

9) 표로 나타낸 자료는 안영준, 〈함경남도에서 새로 알려진 고대유물〉(《고고학자료집》 6, 1983)을 참조하였으며 그 밖의 자료는 박진욱, 〈함경남도일대의 고대유적조사보고〉(《고고학자료집》 4, 1974)의 유물일람표를 참조하였다. 단 지명이 바뀐 것이 확인된 곳은 舊地名을 ()안에 넣었다.

원전 2세기경에는 동해안 예족사회에도 크고 작은 정치집단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들의 집합체가 문헌에 나오는 임둔이라 하겠다.

임둔은 기원전 2세기 초 위만조선에 복속되었다가 기원전 108년 위만조선의 멸망과 함께 한의 임둔군으로 편제되었다. 그러나 군현 경영의 어려움으로 기원전 82년 임둔군의 15개 현 가운데서 일부는 玄菟郡에 이속되고 나머지는 폐지되었다. 뒤이어 고구려지역에서의 토착세력의 저항으로 현도군마저 위협을 받자 기원전 75년 한은 현도군을 興京 老城방면으로 옮기고(제2현도군) 현도군에 이속되었던 현 중에서 單單大嶺의 동쪽 7현은 낙랑군 東部都尉를 두어 관할토록 하였다. 東曉縣·不而縣·蠶臺縣·華麗縣·邪頭昧縣·前莫縣·夫租縣 등 동부도위 소속 7현 중 부조현을 제외한 6현이 동예의 중심세력이 되었다. 임둔군의 治所는 동이현에 있었으나 동부도위 관할로 바뀌면서 치소도 불내현으로 옮겨졌다. 동부도위에 속했던 7현의 위치에 대해 동이현은 덕원, 불이(내)현은 안변, 화려현은 영흥, 부조현은 함흥 등지에 비정되기도 한다.¹⁰⁾ 또는 불이현을 素羅里토성이 발견된 영흥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으나¹¹⁾ 부조현을 제외한 나머지 현의 위치는 대부분 불확실하다. 다만 동예는 북으로 함경남도 정평에서 옥저와 경계를 이루었고 남계는 평강·회양·강릉 등 강원도 북단 어느 지점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²⁾

30년 동부도위가 폐지됨에 따라 7현은 한의 侯國으로 봉해져 각각 독립된 정치집단으로 존속하였다. 이후 동예는 다시 고구려에 복속되었으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 《삼국지》에서는 동부도위 7현이 한의 후국으로 봉해졌다가 後漢末에 다시 고구려에 복속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후한서》동이전 고구려조에는 元初 5년(118) 고구려가 華麗城을 공격하였다는 기사가¹³⁾ 있고, 《삼국사기》고구려본기에는 태조왕 4년(56) 동옥저를 빼앗아 성읍으로 삼고 강역을 개척하여 동으로 창해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다. 고구려 태조왕대는 요동군(後漢 和帝 元興 원년, 105), 현도군을 공

10)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博英社, 1976), 201~208쪽.

11) 도유호, 〈왕검성의 위치〉(《문화유산》 1962-5).

12) 李丙燾, 앞의 책, 229쪽.

13) 《後漢書》권 85, 列傳 75, 東夷 高句麗.

격하여(後漢 安帝 元初 5년, 118) 한군현에 자주 위협을 가하던 시기이므로 동예의 공략시기도 이보다 앞서거나 이와 비슷한 시기였을 것이다. 3세기에 들어와서 魏의 正始 3년(242)에 고구려 東川王이 요동군 西安平을 공격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2년 후 나라 장군 卍丘儉이 출병하여 고구려와 고구려에 복속된 옥저와 동예를 공략하였다. 1차 공격시(224) 관구검의 명으로 현도태수 王頎는 옥저로 도망간 동천왕을 추격하면서 옥저의 읍락들을 파괴하였고, 2차 공격시(245)에는 명을 받은 樂浪太守 劉茂와 帶方太守 弓遵이 휘하 병력을 이끌고 동예를 쳐서 항복시켰다. 이 사건 이후 동예의 각 현들은 책봉과 조공형식을 통해 위에 복속되었다. 이 때 동예에서 가장 유력한 집단이었던 불내현의 지배자는 ‘不耐濊王’으로 봉해져 정기적으로 군현에 조공하였다. 그리고 낙랑군과 대방군에서 군대를 동원하여 전쟁을 할 때면 동예의 주민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고 力役을 징발하여 군현소속 주민을 다루는 듯하였다고 한다. 이후 고구려에 의해 다시 복속될 때까지 동예의 각 세력들은 중국 군현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2) 동예의 사회와 문화

《삼국지》동이전에 동예의 인구는 2만 호라 하였는데 이 숫자는 동부도위에 속했던 6현의 호수를 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평균하면 각 현당 약 3,000여 호가 되어 인구면에서는 삼한 각 小國의 규모와 비슷하다. 大君長이 없었다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동예지역에는 여러 현을 통합한 보다 확대된 통치조직이 형성되지 못하였으며 각 현들은 시종 독립된 정치집단으로 존속하였다. 그러므로 군현이 폐지된 이후의 동예의 각 현들은 삼한의 각 소국처럼 불내국·화려국 등으로 불려져도 좋을 것이다.

한군현 설치 이후 동예의 각 현에도 縣令 또는 縣長이 파견되었음이 문헌과 고고학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漢書》藝文志 詩賦條에는 東曉縣의 縣令 延年이 賦 7편을 남긴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평양에서는 ‘夫租長印’이라는 은제 인장을 부장한 夫租縣의 縣長 高常賢의 무덤이 발견되었다. 현장이 파견된 곳보다 현령이 파견된 곳이 규모가 크거나 행정상 더 중요한 곳이었다

면 延年은 동이현이 임둔군 郡治였던 시기에 파견된 漢의 관리였을 가능성이 높다.¹⁴⁾ 그러나 한의 군현 통제방식은 각 지역 사정과 정치적 사정에 따라 가변적이었다. 군현 설치 초기의 사정은 잘 알 수 없으나 부조현의 예를 보면 동부도위 설치 이후 토착 군장을 邑君으로 봉하여 통치한 적도 있었고, 기원전 1세기 말경에는 고상현과 같은 위만조선 지배자 출신을 낙랑군 지배 구조로 편입하여 부조현장으로 임명하기도 하였다(옥저의 사회와 문화 참조). 이러한 사정은 동예 각 현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한의 군현은 屬吏를 두어 太守·현령·현장을 보좌하여 군현의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케 하였다. 동예지역에서 실시된 속리제는 功曹·主簿·諸曹로 구성되어 있었다. 공조는 제조를 통할하며 제사·考果·禮樂 등의 일을 하며 掾史 임용 등 지방통치의 실권을 위임받는 경우가 많았고, 주부는 문서와 장부를 관리하면서 지방관의 비서 겸 재정관계를 담당하였다. 군현 설치 초기에는 속리를 요동에서 데리고 왔으나 이후에는 토착인을 속리로 임명하였다.¹⁵⁾ 이는 토착 지배세력을 한의 지배구조 속에 끌어 들여 토착민의 반발을 무마하고 군현통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¹⁶⁾ 지방관과 속리들은 각 현의 중심읍락에 거주하면서 각 현을 구성한 여러 읍락들을 전체적으로 통괄하였다. 이러한 공식적인 지배구조 이외에 한 군현은 각 읍락의 우두머리를 三老로 임명하여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읍락민에 대한 전통적인 지배권을 인정해줌으로써 토착사회와의 갈등을 완화시켰다.

동부도위 폐지 이후 동예의 각 현은 侯國으로 봉해져, 縣治가 있었던 중심 읍락의 거수는 侯로 봉해지고 일반 읍락의 거수들은 삼로를 자칭하면서

14) 연넌은 산동성 출신(齊人)으로 漢 武帝 때의 인물이다. 그가 동이현령으로 임명된 연대는 불확실하다(李丙燾, 앞의 책, 200쪽). 그러나 동이현에 현령이 파견되었다면 동이현이 일반 현이었던 시기보다 군치였을 때가 가능성이 더 높다.

15) 속리층의 출자를 고조선 주민과 구분하여 토착 漢人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權五重, 《樂浪郡研究》, 一潮閣, 1992, 73쪽). 이에 대해 양자의 구분의 무의미성을 주장하는 비판적인 견해도 있다(吳永贊, 《樂浪郡의 토착세력 재편과 지배 構造》, 《韓國史論》 35, 서울대, 1996, 56~61쪽).

16) 尹龍九, 〈樂浪前期 郡縣支配勢力의 種族系統과 性格〉(《歷史學報》 126, 1990), 37쪽.

吳永贊, 위의 글.

읍락민에 대한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후국들 사이에 세력 경쟁이 다시 전개되면서 不耐・華麗 등 동예의 유력한 國들은 내부적으로 읍락들을 통합하고 통치조직을 갖추어 나갔다. 3세기 중엽의 불내국이 공조・주부・제조를 두어 동부도위 치소 때의 속리제를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후국 내부에서 진행된 정치 발전의 중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3세기 중엽경 不耐侯에서 不耐濊王으로 작호가 바뀐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화려와 불내 2현이 공모하여 신라의 북경을 침략하였다는 《삼국사기》신라본기 儒理尼師今 17년조의 기사는 동예 각국 사이에 간헐적으로 연맹관계가 형성된 적이 있었음을 비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동예지역에서는 각 국들을 전체적으로 통솔하는 확대된 정치권력의 성장을 보지 못하였다.

함남 금야군(영흥군) 소라리에서 조사된 평지토성은 불내국의 중심지로 비정되기도 한다.¹⁷⁾ 소라리토성은 영흥평야 가운데를 흐르는 용흥강 하류 강변 언덕위에 위치하고 있다. 토성 안에서 세형동검 관계 유물과 중국 戰國계 鑄造 철제도끼, 청동제 수레부속, 철제무기, 승석문토기 등 여러 시기의 유물이 혼재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이 밖에도 소라리토성 내부와 주변 일대에서 청동단지, 귀달린 쇠단지 등이 발견되었고, 토성에서 1km 떨어진 곳에서는 2기의 귀틀무덤이 확인되었다.¹⁸⁾ 이러한 유적들은 불내예국 등 동예의 유력한 국들의 행정 치소와 지배계급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들이다. 그런데 3세기경의 불내예왕이 여전히 일반민과 섞여 살았다는 기사가 있다. 이것은 토성 내부가 지배계급의 전용 거주구역이 아니라 일반민들도 함께 거주하던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배계급의 거주구역이 일반인과 분리될 정도로 정치권력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동예의 언어와 법속은 대개 고구려와 같았으나 의복은 달라 남녀 모두 曲領을¹⁹⁾ 입었다고 한다. 의복의 재료로는 麻布가 있었고 누에를 길러 명주를

17) 도유호, 앞의 글.

18) 한석정, 〈함경남도지역에서 발견된 세형동검유적과 유물〉(《문화유산》1961-1). 박진욱, 앞의 글, 170~173쪽.

19) 목둘레를 둥글게 만든 옷을 말한다.

생산하였다. 남자들은 넓이가 數寸되는 銀花를 옷에 장식으로 달고 다녔으며 옥과 구슬을 보배로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삼한의 주민들이 금은 비단은 진기하게 여기지 않았으나 구슬을 귀하게 여겨 목이나 귀에 장식으로 달고 다녔다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관습이다.

근래 강원도 동해안과 한강 상류지역에서 1~3세기 단계의 집자리유적이 다수 조사되어 동해안 예족사회의 주거형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²⁰⁾ 집의 기본구조는 움집으로 주거면이 땅밑으로 20~50cm 정도 들어가 있다. 평면 형태는 무문토기시대 이래의 전통을 이은 장방형 집자리와 함께 새로이呂자형, 凸자형 집자리가 있다. 강원도 명주군 안인리 주거지유적을 보면 呂자형 집자리는 네모진 두 개의 실내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쪽은 주거 전용공간으로 바닥면이 지하에 있고 다른 하나는 작업공간으로 바닥면이 지상에 있어 비스듬히 경사진 통로에 의해 양쪽이 연결되어 있다. 呂자형 집자리는 실내공간의 기능적 구분이라는 측면뿐 아니라 면적상으로도 이전 시기 주거지보다 크게 확대된 것으로²¹⁾ 이를 예족의 특징적인 가옥 형태로 간주하려는 견해도 있다.²²⁾ 영흥과 안변 등지의 동예의 중심지에서는 아직 이 시대의 전형적인 집자리유적이 조사되지 않아 동해안 예족사회의 공통적인 주거형태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동해안 예족사회내에서도 이미 지역성이 발생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동예에서는 금기 사항이 많아 사람이 병들거나 죽으면 옛집을 버리고 곧 새집을 짓는다고 하였다. 동해안지역에서 조사된 1~3세기대의 취락유적들 중에는 불에 탄 집자리가 자주 발견되어 동이전의 기록과 관련지워질 가능성이 있다. 실수로 화재가 났거나 외부의 방화로 취락이 불탔다면 불탄 집자리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나 강원도 명주군 안

20) 白弘基, 《襄陽郡 柯坪里住居址發掘報告》(1984).

——, 〈原三國時代 村落의 構造와 機能〉(《國史館論叢》 35, 1992).

——, 《江原嶺東地方의 先史文化研究》(江陵大 博物館, 1991), 24~34쪽.

21) 안인리 1기층 주거지 면적은 대략 40㎡로 청동기시대의 주거지의 표준면적인 20㎡보다 크게 넓어졌다고 한다(白弘基, 위의 글, 14쪽).

22) 朴淳發, 〈한성백제 기층문화의 성격〉(충남대 백제연구소 국제학술회의 발표요지, 1994).

인리유적의 불탄 집자리 분포 상태를 보면 불탄 집자리끼리 인접해있는 것도 있으나 그 사이에 정상적인 집자리를 끼고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²³⁾ 그리고 전체 집자리 중에서 불탄 집자리의 수가 의외로 많아(묘자형 집자리의 경우 15기 중 3기) 실수로 인한 화재라기 보다 고의적으로 집을 불태운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동해안의 예족들은 청동기시대 이래 농업을 주된 생산기반으로 하였다. 각 시대의 집자리유적에서 일반적으로 출토되는 반달모양돌칼과 목제농기구를 제작하는 데 쓰는 청동제 도끼와 돌도구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²⁴⁾ 그리고 강원도 명주군 안인리 집자리유적에서는 쌀·콩과 같은 탄화된 곡물이 발견되어 잡곡농사와 함께 벼농사도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⁵⁾ 그리고 10월에는 舞天이라 불리는 祭天행사를 거행하였는데 농경사회의 추수감사제의 전통을 이은 것이다. 이는 농작물의 파종을 끝낸 5월과 추수를 끝낸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하늘에 제사지냈다고 하는 삼한의 농경의례와 유사한 것으로 생산활동에서 차지하는 농경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풍속이다. 그리고 새벽에 별자리를 관찰하여 그 해의 풍흉을 미리 안다는 기록도 동예의 생산기반이 농업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집자리에서 발견되는 돌로 만든 생활도구 중 돌화살촉의 양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사냥과 고기잡이도 생산활동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責禍라는 풍습에서도 이러한 생산활동의 한 면모가 반영되어 있다. 즉 동예 사람들은 山川을 중요시하여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서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산과 내는 목재의 공급, 야생동물의 사냥, 야생열매 채집, 어로활동 등 경제활동의 중요 자원이었다. 그러므로 각 읍락마다 활동 구역을 정하여 서로 침범하지 않았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그 별로 노비·소·말로써 물어주었으며 이러한 풍습을 책화라고 하였다.

23) 白弘基, 앞의 글, 5쪽.

안인리 1기층 묘자형 집자리 중 불탄 흔적이 확인된 1호·2호는 인접해 있으나 28호는 이들로부터 훨씬 떨어져 있다. 그리고 2기층 묘자형 집자리 중에서도 11-2호·27호 집자리가 불탄 집자리로 조사되었으나 양자는 인접해 있지 않다.

24) 白弘基, 《江原嶺東地方의 先史文化研究》Ⅱ(江陵大 博物館, 1992), 16~99쪽.

25) 白弘基, 앞의 글, 7쪽.

중국 군현이 선호한 동예의 특산물은 낙랑 檀弓·斑魚皮·文豹·果下馬 등이었다. 낙랑 단궁은 고구려 貂弓과 함께 중국에까지 널리 알려진 활로 동예에서 만든 것을 낙랑군을 통해 본국에 보낸 데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 반어피는 漢대에는 鱗皮라 하였고 낙랑 동이현에서 생산되는 것이며 神爵 4년(기원전 58)에 이를 잡아 漢의 考工部(기구제작소)에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²⁶⁾ 과하마는 높이 3척의 키가 작은 조랑말로 과수나무 아래에서도 타고 지나갈 수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처럼 조공을 통한 중국 군현과의 교역 이외에 예는 주변의 다른 세력들과도 물자교역을 하였다. 馬韓·濊·倭가 모두 辰弁韓으로부터 철을 교역해갔다는 기록이 그것으로, 철을 얻기 위해 동해안을 따라 동예인들이 경상도지역까지 내려온 것을 알 수 있다. 동예의 창은 길이가 3丈이나 되어 때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잡고서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이처럼 긴 철제창이 김해와 울산 등지의 목곽분에서 자주 출토되고 있다.²⁷⁾ 대동강유역의 태성리에서도 장창이 1점 출토된 적이 있으나(길이 128cm) 양적으로 경남지역에서 출토된 것이 훨씬 많아 동예에서 사용하던 장창은 진변한지역에서 교역해간 것일 가능성이 높다.

동예에서는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지낸다고 하였는데 이는 호랑이를 山神으로 섬기던 원시시대의 풍습이 잔존한 것으로 여겨진다. 檀君신화에 나오는 곰과 호랑이의 이야기를 토tem사상의 반영으로 본다면²⁸⁾ 동예의 호랑이 숭배는 고조선의 곰 숭배와 대비되는 것으로 이는 팽이형토기문화 중심권과 공열토기문화 중심권의 문화적 전통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동예에서는 같은 씨족내에서는 혼인을 하지 않는 族外婚 풍속이 있었다. 사람을 죽인자는 죽음으로 벌을 받게 하였으며 도둑질하는 자가 적었다고 한다. 이는 고조선의 八條禁法과 유사한 원시사회의 관습법이 일부 잔존한 결과이다.

〈李賢惠〉

26) 李丙燾, 앞의 책, 233~234쪽.

魏晉代는 斑魚皮라 하였으나 隋唐代 이후로 海豹皮라 하였다고 한다.

27) 김해 양동리 235호분에서는 자루길이 163cm, 창날 길이 64cm의 것이 출토되었고 200호분에서는 길이 198cm의 것이 출토되었다(東義大 博物館, 〈金海良東里 第235號土壙木槨墓 發掘調査概要〉 1992. 12, 유인물).

28) 金廷鶴, 《韓國上古史研究》(범우사, 1990), 63~79쪽.

2. 옥저의 사회와 문화

1) 옥저의 위치와 변천

《삼국지》동옥저조의 기록에 의하면 沃沮는 개마대산의 동쪽 大海에 접해 있으며 지형은 동북은 좁고 서남은 길어 천 리나 되고 북으로는 挹婁·夫餘와 접하고 남으로는 濊貊과 접한다고 하였다. 옥저는 동옥저로도 불렸으며 남과 북에 각각의 중심지가 있어 남옥저와 북옥저로 구분하였다. 동옥저는 넓은 의미에서 옥저의 총칭으로 사용되었으나 좁은 의미에서는 옥저의 중심 세력인 남옥저를 가리키기도 하였다. 남옥저의 중심지인 옥저성은 현재의 함흥지역이며 남옥저와 동예의 경계는 정평 일대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옥저는 남옥저에서 북으로 8백여 리 떨어져 있었으며 북옥저의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는 길림 연변지구설, 훈춘설, 백두산(장백산) 북쪽지역설, 흑룡강성 영안현 동북지역설, 두만강 남쪽지역설 등으로 다양하다. 문헌 자료 이외에 고고학 자료를 근거로 綏芬河流域의 東寧縣 團結遺蹟을 옥저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으로 간주하고, 이와 유사한 문화유형이 분포된 老爺嶺 이동, 興凱湖 이남을 북옥저지역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¹⁾ 이는 옥저의 범위를 張廣纔嶺 동쪽 牡丹江유역까지 확대시켜 해석하는 데²⁾ 대한 비판으로 鏡泊湖 이남, 英額嶺 이동의 두만강 북쪽지역에 북옥저를 비정하는 견해와도 일부 통한다.³⁾ 북옥저의 중심지는 置溝淩라고 하였는데 치구루의 위치에 대해서도 두만강 하류 琿春설,⁴⁾ 함북 鏡城설,⁵⁾ 間島 局子街설⁶⁾ 등 여러 견해가

1) 李 强, 〈沃沮, 東沃沮考略〉(《北方文物》1981-1), 6~8쪽.

2) 匡 瑜, 〈戰國至兩漢的北沃沮文化〉(《黑龍江文物叢刊》1982-1), 27쪽.

3) 日野開三郎, 《東北アジア民族史》上, 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 14(東京, 三一書房, 1988), 104쪽.

4) 島山喜一, 〈渤海東京考〉(《史學論叢》京城帝大文學部 文學會論纂 7, 1938).

박시형, 《발해사》(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9).

5)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博英社, 1976), 229쪽.

6) 池内宏, 〈曹魏の東方經略〉(《滿鮮史研究》上世篇 1, 祖國社, 1951), 266쪽.

있으나 琿春설이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삼국지》 毌丘儉傳에는 치구루가 아니라 買溝(溲)로 되어 있어 치구루의 오기로 해석되기도 하나, 매구루는 〈광개토대왕릉비〉의 味仇婁와 같은 곳으로 치구루와는 다른 곳이라는 견해도 있다.⁷⁾

남옥저의 중심지였던 함흥지역의 정치집단은 임둔의 중요세력의 하나였다. 임둔지역의 정치집단들은 기원전 2세기경 衛滿朝鮮에 복속되었다가 기원전 108년 漢의 郡縣으로 편제되었다. 이 때 함흥지역에는 夫租縣이 두어졌으며 옥저의 이름은 부조현에서 비롯되었다. 부조현은 기원전 82년 임둔군의 폐지로 현도군에 소속되었다가 기원전 75년 현도군이 만주 興京 老城방면으로 이동한 후(제2현도군) 낙랑군 東部都尉에 소속되었다.⁸⁾ 그리고 기원후 30년 동부도위가 폐지된 후 일시 漢의 侯國으로 봉해졌으나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의하면 기원후 56년 고구려 太祖王의 동해안 진출로 沃沮城은 고구려에 복속되었다. 《後漢書》동이전 고구려조에는 元初 5년(118) “고구려가 濊貊과 더불어 다시 현도군을 침략하고 華麗城을 공격했다”는 기록이 있어, 옥저복속시기도 이 시기로 간주하려는 견해가 있으나 동예에 속한 華麗縣 공격을 옥저복속과 동일한 시기로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한군현 설치 초기의 부조현의 소속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다. 대다수의 견해들이 《삼국지》동이전의 “옥저성으로 현도군을 삼았다”는 기록을 근거로 현도군이 처음 설치된 기원전 107년부터 부조는 현도군 소속이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현 설치 초기 부조현은 임둔군에 속했으나 군현통치의 어려움으로 인해 진번군과 임둔군이 폐지되면서 옥저를 포함한 임둔군 소속 7현이 현도군으로 이속되었다는 비판적 견해가 있다.⁹⁾ 부조현의 소속에 대한 이같은 이견들은 현도군과 임둔군의 위치 비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옥저를 현도군 군치로 보는 입장에서는 1차 현도군의 범위를 함경도 일대에 비정하거나 또는 함경도 전역과 고구려 일부지역을 현도

7) 李丙燾, 앞의 책, 204~205쪽.

盧泰敦, 〈扶餘國의 境域과 그 變遷〉(《國史館論叢》4, 1989), 46쪽.

8) 李丙燾, 위의 책, 169~170쪽.

9) 李丙燾, 위의 책, 228쪽.

군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는 현도군은 중국 무순에서 함흥까지의 긴 협대 모양의 공도에 설치된 것으로¹⁰⁾ 현도군의 설치 목적은 요동방면으로부터 渾江 지류를 거쳐 압록강 중류 集安에 이르고 다시 낭림산맥을 넘어 동해안에 이르는 교통로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고구려를 제압하는 것이므로 이 교통로의 도달지점인 옥저가 현도군에 포함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¹¹⁾ 이처럼 옥저=현도군 소속설은 공통적으로 옥저와 임둔군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옥저=임둔군 소속설은 임둔군을 함경도 일대에, 1차 현도군을 압록강 중류 일대의 고구려지역에 비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도군의 군치인 고구려현은 현재의 집안지역이며, 임둔군에 속한 동옥저는 거리상으로도 집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1차 현도군과는 무관하다는 해석이다.¹²⁾

옥저성이 임둔군에 속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문헌기록의 불분명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는 고고학 자료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진번군과 임둔군이 두어진 곳은 위만조선에 복속되었던 진번과 임둔지역이라는 사실에는 이론이 없다. 그런데 위만조선에 복속되었거나 위만조선과 통교했던 지역에서는 고고학상 위만조선의 중심부에서 출토되는 것과 유물 형태와 유물조합상이 유사한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진번지역으로 추정되는 황해도 봉산군 송산리와 배천군 석산리 등지에서 출토되는 것과 동일한 기원전 2세기 경의 청동기·철기유물들이 함경남도의 함흥시 이화동 등지에서도 출토되었다(앞의 〈표〉 참조).¹³⁾ 그리고 진번·임둔과 함께 등장하는 기원전 2세기경의 중요 정치집단으로 진국이 있다. 진국은 위만조선의 방해로 漢과 직접 통교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는데 辰國의 세력권으로 추정되는 충남과 전라도지역에서도 황해도 송산리나 함흥 이화동과 흡사한

10) 和田清, 〈玄菟郡考〉(《東亞史研究》滿洲篇, 1955).

11) 田中俊明, 〈高句麗の興起と玄菟郡〉(《朝鮮文化研究》1, 東京大 朝鮮文化研究室, 1994), 34~35쪽.

12) 李丙燾, 앞의 책, 195쪽.

13) 황기덕, 〈1958년 춘하기 어지돈지구 관개공사구역유적정리간략보고〉(《문화유산》, 1959-1).

박진옥, 〈함경남도일대의 고대유적조사보고〉(《고고학자료집》4, 1974).

일괄유물이 출토되었다.¹⁴⁾ 이러한 금속제 유물들은 지배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품(*prestige goods*)으로서 개인적인 집착을 통해 획득되기보다 집단간의 정치 경제적 관계를 매개로 취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동해안지역에서 출토되는 기원전 2세기경의 이같은 금속제 유물들은 위만조선에 복속되었던 임둔의 중심지와 범위를 반영하는 유물로 간주될 수 있다. 강원도와 함경도지역을 합하여 이 시기의 청동기 및 철기유물의 분포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함흥과 영흥 일대이다. 그리고 유물의 중요 분포범위는 북쪽은 함남 신창, 남쪽은 강원도 문천으로 함흥을 중심으로 남북 각 60~70km 범위에 걸쳐 있으며, 금속제 유물의 분포밀도는 함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낮아진다. 따라서 동해안 일대에서 임둔의 중심지를 비정한다면 고고학 자료상으로는 함흥과 영흥 일대가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압록강 중류의 集安과 위원 용연동·평북 세족리 그리고 두만강유역의 함북 무산 호곡동·회령 오동 등지에서 출토되는 기원전 3~2세기경의 유물은 이른바 明刀錢유적으로 알려진 戰國계 철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집안에서 출토된 청동유물¹⁵⁾ 역시 고조선의 세형동검과 다른 요동계통의 것이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동북지방의 청동기문화의 지역별 분포상으로도 함경남도 동해안 일대는 금야-토성리문화유형의 분포권으로 두만강유역(오동유형, 초도유형)과는 세부적으로 구분되고 있다.¹⁶⁾ 이같은 고고학 자료들은 두만강유역과 압록강유역의 정치집단들이 진변과 임둔 및 대동강유역의 고조선과는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음을 뜻한다. 이러한 현상은 문헌기록을¹⁷⁾ 통해 위만조선 고지에 낙랑군·진변군·임둔군이 들어섰으며, 압록강과 혼강유역의 고구려지역 즉 예맥사회에 현도군이 들어

14) 충남 당진 소소리, 부여 합송리, 전북 장수 남양리유적이 있다.

李健茂, 〈扶餘合松里遺跡出土 一括遺物〉(《考古學誌》2, 1990).

池健吉, 〈長水南陽里出土 青銅器, 鐵器 一括遺物〉(《考古學誌》2, 1990).

李健茂, 〈唐津素素里遺跡出土 一括遺物〉(《考古學誌》3, 1991).

15) 集安縣文物保管所, 〈集安發現青銅短劍墓〉(《考古》1981-5).

16) 김용간·안영준, 〈함경남도, 량강도 일대에서 새로 알려진 청동기시대유물에 대한 고찰〉(《조선고고연구》, 1986-1), 25~28쪽.

17) 《史記》권 110, 列傳 50, 匈奴의 “漢이 東으로 예맥과 朝鮮을 공략하여 郡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졌다는 주장과도¹⁸⁾ 합치되는 면이 많다.

종족상으로도 부조는 東濊와 함께 濊族에 속하며 貊族이나 韓族과는 구분된다. 기원전 1세기 후반 漢이 夫租縣의 邑君에게 준 ‘부조예군’ 인장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군현에서도 함흥의 부조현을 예족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의 군현이 토착 정치집단을 기본단위로 설치된 것이라면 임둔지역 예족사회의 중요세력이었던 부조현만 분리하여 정치 문화기반이 다른 현도군에 소속시켰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욱이 지리적으로 함흥은 임둔의 중심부에 위치하므로 부조현이 현도군에 소속되었다면 함흥과 그 동북쪽 지역이 모두 현도군에 소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함흥과 영흥에 있던 임둔의 핵심세력을 남과 북으로 양분하여 1년의 시차를 두고 서로 다른 군에 소속시킨 것이 되는데 그 이유가 잘 납득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집안을 비롯하여 현도군 소속 縣治가 있었던 곳에서 널리 확인되고 있는 平地土城遺址가 함흥지방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도 의문이다.¹⁹⁾ 따라서 부조현=현도군 소속설의 중요 근거인 《삼국지》동이전의 ‘옥저성으로 현도군을 삼았다’는 기록을 군현설치 초기부터의 사실로 이해하거나 군이 옥저성을 현도군치로 삼았다고 해석해야 할 근거는 없다. 실제 기원전 82년 임둔군의 폐기로 부조현을 비롯한 임둔의 주요 현들이 일시 현도군에 소속된 적이 있으므로 이 기록은 동옥저의 연혁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옥저성이 낙랑군 동부도위에 소속되기 직전에는 현도군에 속하였다는 사실을 적기한 것으로 생각된다.²⁰⁾

이처럼 함경남도와 강원도 북부 해안지대의 정치집단들은 기원전 2세기경 까지도 임둔이라는 공동의 정치세력을 구성하고 있었으며 기원후 1세기 전반 동부도위가 폐지되기까지 거의 동일한 정치 문화적 변화 과정을 겪어 왔다. 그런데 3세기 중엽에 이르러 부조현이 옥저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와 동시에 함흥과 그 북쪽지역의 주민들은 두만강유역의 주민들과 합쳐져 옥저로 통칭되는 반면 함흥 남쪽의 주민들은 동예로 칭해지고 있다. 이는 한

18) 李丙燾, 앞의 책, 169~170쪽.

19) 田中俊明, 앞의 글, 21쪽.

20) 《삼국지》의 동옥저 관계기록에서 최초로 부조가 임둔군에 편성되었던 사실과 임둔군에서 다시 현도군으로 移屬된 사실이 빠졌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金基興, 〈夫租濊君에 대한 고찰〉, 《韓國史論》 12, 서울대, 1985, 22쪽).

반도 동해안의 예족사회가 옥저와 동예로 나뉘어지고 옥저성의 이름이 함흥 이북 동해안과 두만강유역의 주민을 통칭하는 옥저족의 개념으로까지 확대된 결과이다. 함흥지역 주민이 두만강유역의 주민과 합해져 동일한 종족단위로 인식된 것은 고구려의 동해안 진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 태조왕 대로부터 3세기 중엽까지 지속되어온 고구려의 세력확장 결과 강원도 북부와 함경도 동해안 그리고 두만강유역이 모두 고구려의 지배하에 들어 갔다. 이 과정에서 漢 이래 개척되어온 집안-강계-낭림산맥(薛寒嶺, 牙得嶺)-장진-황초령-함흥으로 이어지는 압록강 중류유역과 동해안을 연결시키는 교통로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이 교통로가 북으로 연장되어 함경도 동해안과 북옥저를 거쳐 고구려로 되돌아 오는 순환코스가 성립되었던 것 같다. 魏의 正始 6년(245) 卅丘儉의 군대가 옥저방면으로 달아난 고구려 東川王(位宮)을 추격한 경로는²¹⁾ 바로 이 지역의 통치과정에서 이전부터 고구려가 활용해온 동해안 북부 교통로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같은 동해안 교통로를 통해 남옥저와 북옥저가 하나의 통치단위로 운용되었고 이것이 3세기대의 역사서에서 남북옥저가 합해져 동옥저라는 단일한 세력집단 내지는 종족집단처럼 나타나게 된 배경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245년 관구검의 명령을 받은 玄菟郡 태수 王頎가 東川王을 추격하여 옥저에 이르러 3천 여명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았다는 기록에서 보이듯이 魏軍에 의해 옥저세력은 큰 타격을 입었고 이곳에 구축된 고구려의 지배기반도 무너졌다. 이후 285년 길림지역에 있던 부여국이 慕容 鮮卑의 공격으로 왕 依慮가 자살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자 왕의 자제와 부여국의 중심세력들이 북옥저로 옮겨와 다음해 晉의 도움으로 나라를 회복할 때까지 머물렀다. 부여 왕족의 북옥저 이주가 정복에 의한 것인지 이전부터의 교류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이 때 북옥저에 잔류한 부여족을 중심으로 東夫餘세력이 형성되었으며²²⁾ 북옥저의 중심지인 치구루에는 동부여의

21) 池內宏, 앞의 글, 271~278쪽.

22) 동부여의 위치가 동예에 있었다는 설도 있다.

韓鎭書, 《海東繹史》 東夫餘考.

丁若鏞, 《疆域考》 東夫餘考.

李丙燾, 앞의 책, 203~206쪽.

왕성인 餘城이 두어졌다.²³⁾ 그리고 410년 고구려가 동부여를 멸망시킨 후 이 지역에는 고구려 柵城이 두어졌고, 고구려 멸망 후 渤海시기에는 東京 龍原府가 설치되었다. 책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훈춘 八連城(半拉城) 일대로 비정하는 종래설에 대해 이곳에서 5리 떨어진 溫特赫部城으로 비정하는 설²⁴⁾과 함북 청진으로 비정하는 새로운 설이 있다.²⁵⁾

2) 옥저의 사회와 문화

옥저지역에는 구석기시대부터 주민들이 거주해 왔으며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이래 동북지역 선사문화의 중심지로 발달하였다. 특히 무문토기시대의 옥저지역은 공열토기로 대표되는 동북지방 무문토기문화의 중요한 분포지였다. 그러나 기원전 4~3세기경 고조선이 요동지역으로부터 대동강유역으로 중심지를 옮김에 따라 남옥저지역은 고조선의 세형동검문화와 본격적으로 접촉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미 각 지역별로 대소 규모의 정치체들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여 옥저의 읍락들을 구성하였다.

《삼국지》동이전에 동옥저는 인구가 5천 戶라고 하였다. 이는 남옥저의 규모를 말하는 것으로 남북옥저 전체의 인구를 합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정도의 인구 규모는 삼한 각 소국의 평균 호수인 2~3천 호보다 크며, 낙랑군 또는 동예 각 현의 평균치인 3천여 호보다도 큰 편이다.²⁶⁾ 5천여 호의 주민들은 여러 개의 읍락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삼한지역을 참고로 읍락의 평균 호수를 5백여 호로 잡으면 적어도 옥저에는 10여 개의 읍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함흥지역에는 1~3세기대의 옥저의 읍락 상태를

23) 池內宏, 〈夫餘考〉(앞의 책).

盧泰敦, 앞의 글, 43~46쪽.

24) 엄장록·정영진, 〈연변의 주요한 고구려 고성에 대한 고찰—고구려의 책성을 검하여 논함〉(《연변대학조선학국제학술토론회논문집》 1, 1989).

盧泰敦, 〈朱蒙의 子孫傳承과 桂婁部の 起源〉(《韓國古代史論叢》 5, 1993), 39쪽.

25) 채태형, 〈발해 동경릉원부—훈춘 팔련성에 대한 재검토〉(《역사과학》 1990—3).

26) 李賢惠,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一潮閣, 1984), 120쪽.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유물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옥저의 읍락들은 기원전 3~2세기 이래 형성되어온 각 지역별 정치집단이 성장 발전한 것이므로 당시의 지배자가 소유하였던 무기와 儀器 자료를 통해 읍락의 대략적인 분포상태를 추론할 수는 있다. 앞의 <표>에서 보듯이 청동기, 철기 유물의 출토량이 많고 분포가 밀집된 곳은 함흥만으로 흘러드는 성천강 하류의 함흥시와 함주군 일대이다. 이 지역에 분포한 유적들은 모두 남옥저를 구성한 중요 읍락으로 특히 유물의 질량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곳은 이화동 유적이다. 이화동유적으로부터 500~800m 거리에 치마동과 지장동유적이 있어 이화동을 포함한 이 일대에 부조현치가 두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함흥시 서쪽 8km 지점의 함주군 대성리, 서북쪽 8km 지점의 함주군 조양리 등 성천강 서쪽에도 읍락이 분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함흥지역에서 해안을 따라 동북쪽으로 20여 km 떨어진 락원군(퇴조) 송해리,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30여 km 이상 떨어진 북청군(신창) 하세동리 등지에도 읍락들이 분포되어 있었을 것이다.

옥저는 위만조선에 복속된 이래 한군현과 고구려 등 주변 강대세력의 지배를 받아 왔으므로 내부적으로 강력한 정치권력이 성장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3세기 중반경에도 여러 읍락들을 통합하여 다스리는 大君王은 없었고 각 읍락마다 대대로 독자적인 통치자가 있었다. 각 읍락의 우두머리들은 스스로 三老라고 불렀는데 이는 군현 통치시대의 유제를 이은 것이다. 군현 설치 초기의 사정은 잘 알 수 없으나 기원전 1세기 후반경 부조현에는 낙랑군으로부터 縣長이 임명·과전되었던 것이 확인된다. 평양시 낙랑토성 근처에서 발견된 貞柏洞 2호 무덤이 그것으로 이 무덤의 주인공은 夫租縣長을 지냈던 高常賢의 무덤으로 밝혀졌다.²⁷⁾ 고상현묘에서는 永始 3년(기원전 14)에 만들었다는 글씨가 쓰여진 일산대와 ‘夫租長印’이라 은상감한 백동도장 1개와 ‘高常賢印’이라고 새겨진 銀印이 들어 있어 무덤 주인공의 직위와 성명 및 활동시기를 나타내고 있다. 이 무덤은 漢의 木槨墳계통의 무덤양식을 따르고 한식 유물이 많이 부장되어 있는 등 한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반영한다.

27) 《고고학자료집》 6(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17~25쪽.

그러나 함께 부장된 세형동검과 동검자루장식 그리고 토기의 조합상(화분형 토기와 배부른단지)은 위만조선 지배계급의 문화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낙랑군지역에 남아 있는 목곽분 주인공의 출신에 대해서는 토착 조선 인설,²⁸⁾ 토착 漢人說²⁹⁾ 등 견해가 다양하다. 이와 달리 한 정부는 武帝 사후 토착세력을 지배기구 속으로 편입하여 군현지배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하에 평양지역 내에 있던 토착 지배세력을 선발하여 부조현의 長으로 파견함으로써 ‘以夷治夷策’의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³⁰⁾ 이처럼 고상현을 평양지방의 위만조선 지배계급 출신으로 본다면 부조현장이 세형동검과 화분형토기 세트를 부장하고 그의 무덤이 평양에 만들어진 배경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의 부조현 통치와 관련하여 주목되어 온 다른 하나의 자료는 고상현묘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夫租薺君墓(정백동 1호무덤)이다.³¹⁾ 이 무덤에서도 ‘夫租薺君’이라 새겨진 은제 도장과 한의 철기, 그리고 위만조선 지배계급의 무덤에서 흔히 나오는 세형동검·동모·청동제 수레부속과 화분형토기 세트 등이 출토되었다. 이 무덤은 기원전 1세기 후반경의 무덤이며, ‘부조예군’ 인장은 한정부가 무덤 주인공을 夫租邑君으로 봉하면서 함께 준 것이다. 그런데 《삼국지》 동옥저조와 예조 기록에 의하면 한이 예족사회의 지배자들을 侯로 봉한 것은 동부도위 폐지(기원후 30) 이후 각 현을 후국으로 봉하면서 행한 조치였다. 그러므로 도위 폐지 이전의 읍군의 위상 즉 부조현의 통치책임자인 夫租縣長과 夫租邑君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에 대해 후와 읍군은 郡內·郡外를 막론하고 이민족의 수장에게 부여된 것이므로 군현체제와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³²⁾ 만약 지방관인 부조현장이 파견된 상태에서 토착 수장을 읍군으로 봉하였다면 읍군의 기능과 통치범위가 문제이다. 이 경우 두 가지 가능성을 설정할 수 있다.

28) 孫秉憲, 〈樂浪古墳의 被葬者〉(《韓國考古學報》 17·18, 1985), 10쪽.

29) 三上次男, 〈樂浪郡社會の支配構造〉(《朝鮮學報》 30, 1964), 19~25쪽.

30) 尹龍九, 〈樂浪前期 郡縣支配勢力의 種族系統과 性格〉(《歷史學報》 126, 1990), 38쪽.

31) 리순진, 〈부조예군무덤에 대하여〉(《고고민속》 1964-4).

32) 權五重, 《樂浪郡研究》(一潮閣, 1992), 50쪽.

하나의 일반 읍락의 수장은 삼로로 임명하고 일반 읍락보다 규모가 큰 읍락의 수장은 읍군으로 봉하였으며 縣治가 있던 대읍락에는 현장이 파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현치가 있는 중심 읍락의 거수를 읍군으로 봉하고 여기에 현장이 함께 파견된 경우이다. 이 때 현장은 현내의 전체 읍락들을 통괄하고 현치가 있는 중심 읍락은 읍군이 다스리는 구조가 되거나 아니면 읍군은 현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존재여야 한다.³³⁾

그러나 양자가 공존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일반적으로 縣長의 파견은 토착민에 대한 직접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읍군은 책봉과 조공을 통한 간접적인 통제 방식으로 지방관 파견보다 강도가 훨씬 약하다. 그러므로 기본 성격상 현장과 읍군이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함께 통치에 참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무덤양식과 부장유물의 형식상으로도 부조예군보다 고상현묘보다 시기적으로 앞선다. 그러나 유물의 질량면에서는 양자가 거의 비슷하여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그러므로 부조읍군은 부조현장 못지 않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누리던 인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도위 폐지 이전 시기에 현장 대신 읍군을 봉한 적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군현의 대토착민 통치가 이완된 시기의 조처일 것이다. 예컨대 한이 현도군을 만주쪽으로 옮기고 낙랑군 동부도위를 설치한 후 동해안 예족사회에 대해 다시 안정된 통치기반을 확립해나가는 과도기에 현장 파견 대신 읍군을 책봉한 일정 시기를 상정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인장의 印文상의 특징을 근거로 부조예군을 조공을 매개로 하는 일반 外臣과는 다른 外臣과 內臣의 중간적인 존재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어 주목된다.³⁴⁾ 실제 동부도위 설치 초기의 낙랑군은 朝鮮縣내의 토착세력의 반발을 억압·회유하는 데 고심하고 있었으므로 동부도위 소속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통제를 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³⁵⁾ 그러므

33) 吳永贊, 〈樂浪郡縣支配의 成立과 構造〉(서울大 國史學科 碩士學位論文, 1995), 45쪽.

34) 內臣인 경우는 漢이란 글자를 표시하지 않고 外臣인 경우 ‘漢某王之印’으로 구성된다고 한다(金基興, 앞의 글, 9쪽 및 栗原朋信, 《秦漢史の研究》, 1960, 220~288쪽).

35) 동부도위 설치를 기점으로 대토착민 정책이 강화되었다는 견해도 있으나(金基興, 위의 글) 이에 대해서는 都尉지배체제가 군현지배체제보다 한 단계 이완된 지배체제라는 일반적인 이해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吳永贊, 앞의 글, 45쪽).

로 부조예군묘의 주인공은 이같은 정치적 배경하에서 이해될 수 있는 인물이다. 이 밖에도 부조예군묘에 대해서는 부조예군의 관작을 받은 인물이 함흥지역이 아니라 평양에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또 하나의 의문이다. 이에 대해 부조지역 주민들의 저항으로 평양에 쫓겨왔다는 해석과³⁶⁾ 한의 군현통치 강화과정에서 부조지역 토착세력의 우두머리를 평양으로 이주시킨 것이라는 상반된 견해가 있다.³⁷⁾ 이러한 의문 역시 군현의 대토착민정책의 변화와 관련하여 설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고상현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원전 1세기 후반경 한의 군현 통제방식은 토착 지배계급을 군현지배체계의 일부로 끌어들여 縣長으로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토착화의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漢式 유물의 출토량과 빈도에서 나타나듯이 군현 설치 이외의 지역인 辰弁韓지역에서도 기원전 1세기 후반대에 이르면서 한의 대토착민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의 정책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기원후 30년 동부도위의 폐지로 부조현은 侯國이 되었고 토착지배자들은 侯·邑君 등으로 봉해지면서 자치권을 회복하였다. 이후 20여 년이 경과한 후 고구려에 복속되면서 부조현의 지배자들은 고구려 관직인 使者에 임명되어 고구려 大加의 지시를 받았다. 대가는 조세 수납과 布·물고기·소금 이외에도 각종 해산물들을 바치도록 요구하고 미인을 징발하여 노비나 첩으로 삼았다. 《삼국지》에서는 고구려인들이 옥저인들을 奴僕처럼 대한다고 기록하고 있어 옥저인들이 고구려의 집단예속민으로 전락된 상태를 보여준다.

옥저의 주된 생산기반은 농업이었다. 지형이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하고 있었으므로 해안지역에서는 해산물이 풍부하였고 토지가 비옥하여 五穀이 잘 자란다고 하였다. 북옥저지역에서도 일찍부터 잡곡농사가 행해졌던 흔적이 있다. 함경북도 무산 호곡동의 청동기시대 유적에서는 탄화된 기장과 수수가 발견되었고, 북옥저의 주거지로 비정되는 흑룡강성 東寧縣 團結住居址 유적(77F5)에서도 탄화된 粟이 발견되었다.³⁸⁾ 《삼국지》 弁辰조에 五穀과 稻

36) 도유호, 〈왕검성의 위치〉(《문화유산》 1962-5), 61쪽.

37) 金基興, 앞의 글, 30쪽.

38) 匡瑜, 앞의 글, 28쪽; 《黑龍江省文物考古三十年主要收穫》.

가 잘 자란다는 표현에 나타나 있듯이 오곡 중에 벼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옥저의 장례 풍속에 나오는 쌀의 기록을 통해 잡곡농사 이외에 벼도 일부 재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소와 말이 적고 창을 가지고 步戰을 잘 하며 음식과 주거·의복·예절이 고구려와 비슷하였다고 한다. 청동기문화 단계에서는 동북지방과 압록강 중류유역은 각각 공열토기와 公貴里토기문화의 중심지로서 개성있는 지역문화를 형성하고 있었고, 초기 철기시대에 들어 와서도 함남지방은 압록강유역과 달리 대동강유역의 고조선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3세기경 중국인에 의해 관찰된 의식주 생활상의 이같은 유사성은 고구려 복속하에서 진행된 동화현상의 결과로 생각된다.

두 지역의 전통적인 문화기반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장례 풍속과 혼인 풍속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옥저에서는 길이가 10여 丈이나 되는 큰 나무곽을 만들어 한 쪽에 문을 만들어 두었다가 사람이 죽으면 가매장을 하여 살이 다 썩으면 뻘만 가려 櫛 속에 안치한다고 하였다. 곱은 가족 공용이며 죽은 사람의 숫자대로 나무로 사람의 모습을 새겨두고, 질그릇 솥에 쌀을 담아 곱의 문에 매달아 놓았다고 한다. 이는 압록강 중류 및 혼강·독노강유역에 분포된 강돌을 쌓아 만든 돌무지무덤과는 대조를 이룬다. 옥저의 혼인 풍속은 신랑의 집에서 혼인을 약속한 여자를 데려다 장성하도록 기른 후 며느리로 삼는 민며느리제(預婦制)였다.³⁹⁾ 여자가 성인이 되면 본가에 다시 돌아와 신부의 가족들이 신랑집에 돈을 요구하고 돈이 지불된 후 신랑집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한다. 이러한 혼인 풍속은 신랑이 혼인 후 첫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여자의 집에 와서 함께 지내면서 각종 맺가를 치르도록 하는 고구려 婿屋制(테릴사위제도)와는 다르다.

중국 흑룡강성 동녕현에서는 북옥저인들의 주거생활을 보여주는 유적들이 다수 발굴되었다. 대표적인 유적인 團結주거지(77F1)는 실내면적이 70㎡, 깊이 35cm 정도의 장방형 반수혈식 주거지로 주춧돌을 사용하여 기둥을 세웠다. 실내 서벽 남쪽 모서리에는 부뚜막과 아궁이가 있고 서벽에서 북벽으로 벽을 따라 난방시설(火牆)이 마련되어 있다. 이는 흙으로 벽을 쌓고 위를 돌

39) 金斗憲, 《韓國家族制度研究》(乙酉文化社, 1949).

로 덮은 길이 11m, 폭 50cm, 높이 30cm 가량의 터널 형태의 시설로 團結문화 즉 북옥저인들의 주거문화의 중요한 특징으로 간주되고 있다.⁴⁰⁾ 그리고 龍井현 등지에서는 高山 취락지가 조사되고 있어 “북옥저인들은 挹婁인들이 배를 타고 와서 노략질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여름철에는 산속 바위굴에서 지내고, 뱃길이 통하지 않는 겨울철이 되어서야 마을에 내려와 살았다”고 하는 《삼국지》의 기록과 부합한다고 하겠다.⁴¹⁾

함경도지역에서는 아직 단결유적과 비슷한 주거지유형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함경남도 동해안 일대에 분포하는 금야-토성리형문화는 단결유적보다 연대가 앞서는 주거지유적이기는 하나 이는 두만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주거지와는 구조가 다르며 오히려 대동강·재령강유역의 팽이형토기 주민들의 집기둥 배치와 같다고 한다.⁴²⁾ 그러므로 북옥저와 남옥저의 주거생활의 비교는 앞으로 금야-토성리형문화를 계승한 시기의 주거지유적들이 조사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만주와 연해주 일대의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읍루·肅慎족과 다른 북옥저 고유의 문화성격을 구체적으로 밝혀나가야 할 것이다.

〈李賢惠〉

40) 匡瑜, 앞의 글, 28쪽.

41) 李强, 앞의 글, 6쪽.

42) 《우리나라 원시집자리에 관한 연구》(사회과학출판사, 1975), 157~158쪽.